

# 교양필수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분석: J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정열<sup>1\*</sup>, 김삼섭<sup>2</sup>

<sup>1</sup>중부대학교 교직과 교수, <sup>2</sup>중부대학교 대학원 교수

## An Analysis of Satisfaction on the Essential Curriculum: Focusing on J University Case

Jung-Yull Lee<sup>1\*</sup>, Sam-Sup Kim<sup>2</sup>

<sup>1</sup>Professor, The Faculty of Education, Joongbu University

<sup>2</sup>Professor, Graduate School, Joongbu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에서는 J대학의 교양필수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J대학 2~4학년 502명의 설문 조사 결과를 기초로 성·학년·계열·캠퍼스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았다. 첫째,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창의적 사고, 대학생활지도 및 취창업진로, 대학생활지도 및 진로설계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양필수 교과목에 대한 학년별 만족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열별 만족도는 자연공학, 보건복지, 예체능, 인문사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캠퍼스별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 교양교육과정, 특히 교양필수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교양필수, 교양교육과정, 만족도, 핵심역량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satisfaction level of J university's compulsory liberal arts subject with quantitative research. The results quantitativ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men are more interested in creative thinking, college life guidance and career path design than girls. Seco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required liberal arts subject by grade was found to be without a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the satisfaction level of each line of learning was shown in the order of natural engineering, health and welfare, physical fitness, and humanities.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lines of learning was found to vary. Fourth, The satisfaction level of each campus was found to var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to improve the college liberal arts curriculum, especially the compulsory liberal arts curriculum.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to improve the college liberal arts curriculum, especially the compulsory liberal arts curriculum.

**Key Words** : Compulsory liberal education subject, Liberal educational curriculum, Satisfaction level, Core competencies

### 1. 서론

교양교육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교양인으로서의 소

양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 즉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을 뜻한다. 흔히 직업 기술이나 전문적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고대 그리스 사

\*Corresponding Author : Jung-Yull Lee(jungyull@jbm.ac.kr)

Received November 22,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December 10,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회에 근원을 둔 전통적인 자유학문적 인문교육(liberal education)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 개념과 목적, 내용, 방법 등이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변천해 왔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요구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현재 이후를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1]. 4차 산업혁명은 ICBMA(IoT, Cloud, BigData, Mobile, AI) 기술의 발전에 근간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 문명 사회를 초지능 사회로 변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초지능 사회란 알파고와 그 좋은 예로서,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를 일컫는다. 초지능 사회에서는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고 융합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의 초지능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양인'을 양성하는 교육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초지능 사회에서의 교양인은 기계를 다룰 줄 알고, 기계가 인간에게 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인간이 기획하고 설계하면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또한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은 정보기술 역량과 더불어 자기주도적 역량을 요구한다. 글로벌화 된 업무 환경은 세계공용어뿐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을 요구한다. 전통 산업분야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변화는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과 대인관계기술 혹은 의사소통기술을 요구한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과 협력이 요구되는 직업환경은 마음가짐이나 태도 등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달라지고 있다. 즉, 교양교육을 통해 산출된 결과로서의 지식뿐 아니라 산출 과정을 중요시하는 교육으로,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에서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교육으로, 그리고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지식융합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교육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상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오늘날 각 대학들은 교양교육과정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별도로 교육부는 대학역량진단평가 등에 교양교육 지표를 포함시켜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양교육 강화 정책과 관계없이 대학교육의 질이 교양교육의 질에 달려있다는 판

단에 따라 각 대학은 나름대로의 인재상과 실천적 과제로서 핵심역량을 설정하는 등 교양교육과정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과제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인재상에 대한 검토, 목표 인재상을 길러내고자 하는 핵심역량의 효율성과 타당성의 검토, 교양과목에 대한 만족도 인식 수준 등 그 범주가 매우 넓다. 그 중에서 교육대상인 학생들이 교양교육과정, 특히 교양필수 교과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는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첫 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대상 당사자의 평가가 교양교육과정 운영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출발점이자 핵심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학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교양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인식 연구[2], 교양교육 운영에 관한 연구[3,4], 개선 방향과 지원에 관한 연구[5-9]와 함께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 연구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는데, 교양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10]와 특정 과목별 만족도, 예를 들면 교양영어[11-14], 교양체육[15,16], 교양음악[17]등에 대한 만족도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특정 대학의 교양필수 교과목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J대학의 교양필수 4개 핵심역량, 즉 인성,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창의융합, 자기진로 및 취창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 8개 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즉, 인성 역량은 '바른 인성' 1개 과목,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역량은 '발표와 토론', '인간관계와 소통'의 2개 과목, 창의융합 역량은 '창의적 사고' 1개 과목, 자기진로 및 취창업 역량은 '대학생활지도 및 취창업진로탐색', '대학생활지도 및 진로설계', '직업선택과 경력개발', '취창업 성공전략'의 4개 과목 총 8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J대학의 교양필수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성·학년·계열·캠퍼스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변인별 차이는 교양필수과목을 개설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방법

### 2.1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J대학 2~4학년 전체 5,28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502명(응답률 9.5%)이었는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93명의 자료를 제외한 409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대상 자료로 삼았다.

대상 학년은 2~4학년으로 정한 이유는 1학년의 경우 교양교육과정 이수 기간이 짧고 이수과목도 적기 때문이었다. 계열은 11개 학부를 학문적 성격이 유사한 계열로 재구성하여 인문사회(경찰경호학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사법학부, 항공관광학부), 보건복지(보건복지학부, 바이오융합학부), 자연공학(건축도목공학부, 소프트웨어공학부,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예체능(문화콘텐츠학부, 공연예술체육학부) 4개 계열로 묶었다. 캠퍼스는 본교 성격의 지방 C 캠퍼스와 분교 성격의 수도권 G 캠퍼스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성·학년·계열·캠퍼스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 2.2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J대학 교양필수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지'는 J대학 학생성장교양학부에서 대학혁신지

원사업의 하나로 이루어진 '교양교육 재정립 및 특화 교양교육과정 TFT 연구 보고서'(최경애, 김우석, 김종욱, 김주석, 박은영, 박종호, 백민제, 지희진, 2019)에서 사용한 '학생성장 지향가치 및 교양교육 니즈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지'와 김용기와 함정현(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고와 표현 필수과목에 대한 만족도', 한국교육개발원(2012)의 '교수-학습역량진단도구' 등에서 이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문항들을 발췌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이 조사지는 교양필수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관련된 ① 수업목표, ② 학습량, ③ 수업방법, ④ 수업자료의 충실성, ⑤ 흥미와 지적 호기심, ⑥ 진로와의 연계성, ⑦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⑧ 학문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의 조화, ⑨ 핵심역량과의 연계성, ⑩ 평가의 적절성의 10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조사지에 J대학 교양필수 교과목의 역량별 목표를 기술하여 평가하는 데 참조하도록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Table 2와 같다. 또한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핵심역량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부가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survey participants by gender, grade, line of learning, and campus

factors	number of cases(n, %)			
gender	M(184, 45.0)		F(225, 55.0)	
grade	2nd(195, 47.7)	3rd(124, 30.3)	4th(90, 22.0)	
major category	humanities & society (111, 27.1)	health & welfare (157, 38.4)	natural & technology (57, 13.9)	art & physical ed. (84, 20.5)
campus	C(210, 51.3)		G(199, 48.7)	

Table 2. Competency goals of the essential liberal arts of J University

core competency	subjects	content of a survey
personality	good-personality	To cultivate one's human character by applying one's inner self and keeping one's health sound
communication & P.R	presentation and discussion	Improve effective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and presentation with each other
	communication & P.R.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and form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in various social situations
creative convergence	creative thinking	Developing the ability to derive new ideas and create value
self-career & employment/ start-up	career design	Lead the development of the various skills and capabilities required to achieve your goals
	career exploration	Development of Planning Capabilities for Establishing career goals and achieving goals
	Job selection & Career development	career · career choice and employment · career development
	Strategies for Success in Employment and Start-up	Plan employment and start-up and acquire success strategies

## 2.3 절차

설문조사는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J대학 자체 인터넷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였다.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먼저, 각 학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각 학과에 전달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고, 각 학과에도 별도의 이메일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설문조사의 취지와 방법 등을 소개하였고, 각 학부에서 조교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일일이 전화를 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협조를 구하도록 하였다.

## 2.4 자료 처리

양적연구로서 교양필수 교과목에 대한 요인별 성·학년·계열·캠퍼스별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검증을 하였는데, 성과 캠퍼스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는 대응표본  $t$ -검증을, 학년과 계열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2.0 버전을 활용하였다.

## 3. 결과

J대학의 교양필수 전체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성, 학년, 전공학부, 캠퍼스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1 성별 만족도 차이

J대학의 교양필수 전체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ifference in satisfaction level of required liberal arts subject by gender

core competency	subjects	male	female	df	t
		M(SD)	M(SD)		
personality	good-personality	3.16(1.25)	3.05(1.27)	390	.845
communication & P.R	presentation and discussion	3.38(1.10)	3.44(1.13)	333	-.465
	communication & P.R.	3.69(1.02)	3.56(1.06)	309	1.037
creative convergence	creative thinking	3.59(1.02)	3.30(1.03)	296	2.423*
self-career & employment/ start-up	career exploration	3.38(1.21)	3.04(1.11)	318	2.565*
	career design	3.41(1.15)	3.14( .99)	312	2.249*
	Job selection & Career development	3.33(1.07)	3.18( .91)	216	1.117
	Strategies for Success in Employment and Start-up	3.26(1.16)	3.14( .94)	184	.791

\*  $p < .05$

Table 4. Difference in satisfaction level of required liberal arts subject by grade

core competency	subjects	2nd	3rd	4th	F	p
		M(SD)	M(SD)	M(SD)		
personality	good-personality	3.23(1.36)	3.03(1.13)	2.92(1.19)	2.046	.131
communication & P.R	presentation and discussion	3.43(1.14)	3.37(1.06)	3.44(1.14)	.122	.885
	communication & P.R.	3.62(1.07)	3.65( .97)	3.54(1.09)	.204	.816
creative convergence	creative thinking	3.42(1.11)	3.36(1.04)	3.47( .80)	.207	.813
self-career & employment/ start-up	career exploration	3.27(1.20)	3.12(1.11)	3.10(1.14)	.705	.495
	career design	3.34(1.10)	3.19(1.06)	3.15(1.01)	1.008	.366
	Job selection & Career development	3.27(1.00)	3.29(1.00)	3.17( .95)	.265	.767
	Strategies for Success in Employment and Start-up	3.22(1.14)	3.20( .97)	3.16(1.02)	1.616	.940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창의적 사고( $t = 2.423, p < .05$ ), 대학생활지도 및 취창업진로( $t = 2.565, p < .05$ ), 대학생활지도 및 진로설계( $t = 2.249, p < .05$ )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 간에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필수 과목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남녀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Scheffe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창의적 사고, 대학생활지도 및 취창업진로, 대학생활지도 및 진로설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p < .05$ ).

### 3.2 학년별 만족도 차이

J대학의 교양필수 전체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F$ -검증을 실시

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양필수 교과목에 대한 학년별 만족도는 바른 인성 전 교과목 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필수 8개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2학년( $M = 3.35, SD = 1.01$ ), 3학년( $M = 3.27, SD = 1.13$ ), 4학년( $M = 3.24, SD = .99$ )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 3.3 계열별 만족도 차이

J대학의 교양필수 전체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학문 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F$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사소통 및 대인

Table 5. Difference in satisfaction level of required liberal arts subject by line of learning

core competency	subjects	humanities & society	health & welfare	natural & technology	art & physical ed.	F	p
		M(SD)	M(SD)	M(SD)	M(SD)		
personality	good-personality	2.95(1.27)	2.87(1.20)	3.62(1.15)	3.35(1.30)	6.515	.000***
communication & P.R	presentation and discussion	3.37(1.22)	3.45(.99)	3.44(1.05)	3.39(1.23)	.111	.953
	communication & P.R.	3.44(1.07)	3.63(.91)	3.70(1.08)	3.72(1.20)	1.114	.344
creative convergence	creative thinking	3.21(1.01)	3.34(.98)	3.61(1.00)	3.65(1.12)	2.934	.034*
self-career & employment/ start-up	career exploration	3.01(1.11)	3.46(1.07)	3.09(1.16)	2.99(1.31)	3.841	.010**
	career design	3.00(1.05)	3.58(.95)	3.16(1.12)	3.04(1.14)	6.544	.000***
	Job selection & Career development	2.93(.92)	3.36(.92)	3.23(1.01)	3.43(1.09)	3.014	.031*
	Strategies for Success in Employment and Start-up	2.81(1.00)	3.35(.98)	3.25(1.11)	3.33(1.11)	3.000	.032*

\*  $p < .05$ , \*\*  $p < .01$ , \*\*\*  $p < .001$

Table 6. Difference in satisfaction level of required liberal arts subject by campus

core competency	subjects	C campus	G campus	df	t
		M(SD)	M(SD)		
personality	good-personality	2.72(1.16)	3.50(1.24)	390	-6.396***
communication & P.R	presentation and discussion	3.45(1.03)	3.37(1.19)	333	.658
	communication & P.R.	3.47(.96)	3.76(1.12)	309	-2.485*
creative convergence	creative thinking	3.29(1.00)	3.56(1.06)	296	-2.264*
self-career & employment/ start-up	career exploration	3.42(1.07)	2.95(1.21)	318	3.701***
	career design	3.51(.96)	2.99(1.12)	312	4.395***
	Job selection & Career development	3.31(.98)	3.18(.99)	216	.967
	Strategies for Success in Employment and Start-up	3.24(1.04)	3.13(1.06)	184	.712

\*  $p < .05$ , \*\*\*  $p < .001$

관계 역량에 속하는 발표와 토론과 인간관계와 소통 두 교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과목, 즉 바른 인성( $F = 6.515, p < .001$ ), 창의적 사고( $F = 2.934, p < .05$ ), 대학생활지도 및 취창업진로탐색( $F = 3.841, p < .01$ ), 대학생활지도 및 진로설계( $F = 6.544, p < .001$ ), 직업선택과 경력개발( $F = 3.014, p < .05$ ), 취창업 성공전략( $F = 3.000, p < .05$ )에 대한 학문계열별 만족도는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필수 교과목 전반에 대한 학문계열별 만족도는 자연공학( $M = 3.39, SD = 1.04$ ), 보건복지( $M = 3.38, SD = 1.12$ ), 예체능( $M = 3.36, SD = .98$ ), 인문사회( $M = 3.09, SD = 1.11$ )의 순으로 인문사회 계열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4 캠퍼스별 만족도 차이

J대학의 교양필수 전체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캠퍼스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바른 인성( $t = -6.396, p = .001$ ), 인간관계와 소통( $t = -2.485, p = .05$ ), 창의적 사고( $t = -2.264, p = .05$ ), 대학생활지도 및 취창업진로( $t = 3.701, p = .001$ ), 대학생활지도 및 진로설계( $t = 4.395, p = .001$ )에 대한 만족도는 캠퍼스에 따라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필수 과목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캠퍼스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Scheffe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바른 인성, 인간관계와 소통 및 창의적 사고는 G 캠퍼스의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고( $p < .05$ ), 대학생활지도 및 취창업진로와 대학생활지도 및 진로설계는 C 캠퍼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p < .05$ ).

##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J대학의 교양필수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알아보았다. 양적 연구에서는 J대학 2~4학년 502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성·학년·계열·캠퍼스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았고, 질적연구에서는 계열을 고려하여 선정된 6명의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교양필수 교과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등을 탐색하였다.

먼저, 양적연구에서는 교양필수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성·학년·계열·캠퍼스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필수 교과목에 대한 성별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창의적 사고, 대학생활지도 및 취창업진로, 대학생활지도 및 진로설계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양필수 교과목에 대한 학년별 만족도는 전 교과목 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교양필수 교과목에 대한 계열별 만족도는 자연공학, 보건복지, 예체능, 인문사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양필수 교과목에 대한 캠퍼스별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바른 인성, 인간관계와 소통 및 창의적 사고에 대한 만족도는 G 캠퍼스의 만족도가 더 높고, 대학생활지도 및 취창업진로와 대학생활지도 및 진로설계에 대한 만족도는 C 캠퍼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과정에서 교양선택 교과목에 대한 기억이 이 연구의 조사대상인 교양필수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연구자는 사전에 이 점을 고려하여 조사지에 J대학 교양필수 교과목의 역량별 목표를 기술하여 평가하는 데 참조하도록 하였지만, 교양선택 교과목에 대한 기억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기가 끝난 직후에 교양필수 교과목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특정 대학의 교양필수 교과목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 교양교육과정, 특히 교양필수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S

- [1] J. S. Kim. (2017). The prospect of future educ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Forum*, (pp. 25-36).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 [2] B. K. Lee, U. K. Kim & J. S. Lee (2010).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n general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8(1), 1-23.

- [3] Y. K. Kim & J. H. Ham. (2017). An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Implementation of Liberal Education at University: Focusing on H Univers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10), 616-623.
- [4] Y. H. Choi. (2017).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s students' learning style, lectur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the liberal art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4), 307-332.
- [5] J. H. Park & K. U. Ryu (2014). The Analyses of the Concepts, Contents, Satisfaction and Future Needs for College General Education.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8(2), 43-82.
- [6] S. S. Paek. (2017). Search for direc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2), 13-51.
- [7] M. S. Choi. (2017).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liberal education at the junior college according to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6), 663-702.
- [8] E. G. Yoon & Y. J. Lee. (2018).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iculum of general education across 9 universities of the world to improve the system.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2(2), 259-286.
- [9] H. K. Kim, Yun, H. Jeong & S. H. Jin (2019). A study on design and development of adult learner-friendly curriculum for general education.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3), 147-177.
- [10] P. G. Baek. (2012). Perception on the satisfaction, educational experiences, learning outcomes of general education: Mainly with 'A'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6(1), 431-466.
- [11] M. G. Ha. (2010). A Study of Learner Satisfaction on College English Programs.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9(2), 269-299. DOI: 10.18649/jkees.2010.9.2.269
- [12] J. M. Nam (2017).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general English: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students' and instructors' perceptions.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24(1), 47-65.
- [13] C. W. Park, J. Y. Lee & J. Y. Lee. (2018). Students' Perception of Art,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urses Taught in English in a Science and Engineering University of South Korea: Examining a Survey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2(1), 141-165.
- [14] M. J. Shin. (2019). *A Study on the motivation of English learning and college English class' satisfaction of North Korea refugee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 [15] H. M. Heo & S. J. Kim. (2003). A study on female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at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and Women*, 17(2), 163-176.
- [16] J. M. Kim.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un factor and physical education learning attitude, classes satisfaction of physical education in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5(1), 319-330.
- [17] M. S. Park. (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learning motivation in university music education on learning flow,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learning. *The Korean Society of Music Education Technology*, 23, 1-16.
- [18] M. Y. Song & S. H. Kim. (2016). A study of the level of class satisfaction on the application of convergence design curriculum to classes in university: Focused on "Design & Creative Thinking" at Dongseo University in Busan.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54, 183-196.

## 이 정 열(Jung-Yull Lee)

[정회원]



교육

· E-Mail : jungyull@jbm.ac.kr

- 2004년 8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0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4년 2월 ~ 현재: 중부대학교 부총장
- 관심분야 : 교육행정, 교육정책, 고등

## 김 삼 섭(Sam-Sup Kim)

[정회원]



학교 교수

· 2019년 9월 ~ 현재: 중부대학교 석좌교수  
 · E-Mail : koreankss@joongbu.ac.kr

- 1982년 2월 : 공주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학사)
- 1995년 8월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 (교육학박사)
- 1985년 9월 ~ 2014년 2월 : 공주대학교 교수
- 2015년 3월 ~ 2019년 8월 : 중부대학교 교수